

배포일시	2021년 8월 26일
보도일시	즉시

“반도체 산업의 성패가 경제성장의 핵심”

- 송영길 대표도 참석 예정

- 민주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릴레이 청책(聽策) 간담회 추진

- 삼성경제연구소와 청책 간담회(3차) 개최
 - ICT(반도체) 혁신, 바이오 산업 등 주제 논의
- D.N.A.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ICT 분야의 핵심 과제
 - 국가 차원의 협업과 R&D 투자를 통한 AI 반도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최첨단의 보안기술 확보 등 논의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은 미래-전략산업 활성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를 만난다.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ICT(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산업,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쇼핑, 스트리밍, 게임, 음식배달 이외에도 비대면 근무, 교육, 진료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관련 산업의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 “세계적 모범사례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세계의 경제 및 산업의 주도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ICT의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국의 위상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웅래 원장은 “D.N.A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ICT 분야의 핵심과제이며 ICT 혁신성장 기반을 정비하여 한국의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적기”라면서 “인프라, 부품·생산, 제품서비스 혁신과 함께 AI·SW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ICT 혁신을 위한 디지털 뉴딜은 미래사회 준비와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웅래 원장과 민주연구원 관계자들은 8/19(목) SK경영경제연구소(소장 염용섭)를 만났고, 25일(수) LG경제연구원(원장 김영민)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 9/1(수)에는 현대차 그룹의 정책연구소인 HMG경영연구원(원장 김견) 등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청책 간담회 현장의 기자 출입은 제한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담회 결과 보도자료는 행사 종료 후 배포할 예정입니다.

※ 향후 <청책 간담회> 일정

- 8.27.(금) 15:30 삼성경제연구소
- 9.1.(수) 15:30 HMG경영연구원(현대차그룹)